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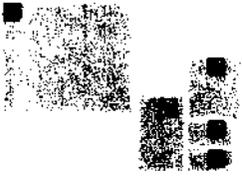
중국의 에이즈예방 홍보현황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국내의 에이즈관련 민간단체들은 한·중 HIV/AIDS 관련 사업 교류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국립보건원방역과, 구세군HIV/AIDS예방사업단, 한국에이즈퇴치연맹, UNDP 한국사무소에서 각각 HIV/AIDS사업 담당자가 동행하여 북경, 운남성의 곤명, 홍콩을 방문하여 중국의 에이즈예방사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양국간 에이즈정보 교류를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은 감염인의 수는 100만명이 넘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내륙으로 지목받고 있다.

18 관련기사 20쪽



- 1 에이즈예방을 위한 제작된 각종 포스터들.
- 2 에이즈 감염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쉼터이자 다양한 에이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국 homeaids사무실 전경.
- 3 HIV/AIDS도서관 (Red Ribbon Centre)의 홍보부스.

- 4 중국의 HIV/AIDS 관련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에이즈관련 정보들 또한 갖추고 있는 전문 도서관.
- 5 HIV/AIDS도서관(Red Ribbon Centre)에 전시되어 있는 콘돔사용법.

